

## 대림 제2주일 복음나누기

“보라, 내가 네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마르 1,2)

1. 성호경
2. 시작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
3. 자기소개와 한 달의 삶 돌아보기(각자 어떻게 지냈는지 나눕니다)
4. 준비기도<각자 자유롭게>
5. 독서 (성경읽기 I) - 마르 1,1-8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8

1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2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네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3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4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5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6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7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8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 세밀한 독서 나눔

- 한 사람이 성경을 큰 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다 같이 큰소리로 읽어도 좋습니다)
- 모두 들은 후, 각자가 성경 말씀을 한절, 한절 세밀히 읽습니다.
- 처음부터 단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읽습니다. 의미 있는 단어, 반복되는 어휘나 문장을 주의 깊게 읽으며, 성경의 다른 곳에 그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지 기억하도록 합니다.(약 5분 정도)
- 한 사람씩 그 단어나 구절을 아주 천천히 세 번씩 반복하여 외칩니다.
- 단어나 구절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돌아가며 발표합니다.
- 세밀한 독서가 끝나면 성경 해설 부분을 서로 돌아가며 천천히 읽습니다.

### < 성경해설 >

대림초에 불을 두개 밝히며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 또한 재촉해 봅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심 생활로, 하느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2 베드 3,12)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 것은 과연 언제부터일까요? 다윗 임금과 솔로몬 임금의 왕조가 무너진 이후, 이스라엘이 힘없는 민족이 되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때부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윗 임금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다시 그들의 왕국을 튼튼하게 세우고, 힘 있고, 찬란했던 이스라엘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신망이 높았던 이사야 예언자는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에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이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니,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이사 40,3-5)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자기 뒤에 오실 분에 대하여 이야기함으로써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요.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습니다(4절). 회개의 세례는 나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죄로 인해 멀어졌던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인 것이지요.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2 베드 3,9-10).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통해 회개의 일면을 바라봅니다. 광야에서,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6절)는 사실은 강요된 삶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기꺼운 선택이 가능했으며 그것이 온전한 투신의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곳(광야), 최소한의 의식주(낙타털 옷, 메뚜기, 들꿀)로 기도와 희생의 삶을 봉헌했습니다. 또한 그는 구약시대에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예언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세례자 요한은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던 영광을 기꺼운 마음으로, 오실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7절의 고백은 기도와 성찰이 가능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쓰레기로 여겼다.”고 하신 사도 바오로의 고백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회개의 세례는 우리 마음의 상처로 생긴 골짜기를 메우고, 오만한 산과 언덕을 낮아지게 할 것이며, 거칠어졌던 마음이 평지가 되고, 험해진 마음이 갓난아기의 그것처럼 깨끗한 평야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평평하고 깨끗해진 마음은 오시는 주님을 잘 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물의 세례(세례자 요한)가 아닌 성령의 세례(예수님)로 완전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충만한 삶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Here and Now)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해설을 듣고 자신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말씀으로 하느님께서 지금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합니다. 5분 정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 ※ 묵상나누기

- 대림시기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설레임을 가졌던 경험이나, 특별히 결심하고 지켰던 것이 있다면 나눠 주십시오.

#### 6. 되새김(성경읽기 II)

☞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며, 기도와 관심 그리고 실천을 위해서는 되새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다른 누군가가 또다시 큰 소리로 읽습니다.

#### 7. 마침기도(개인의 특별한 지향이나 소망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 8. 안건토의

#### 9. 기타토의(공지사항)

#### 10. 마침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